

# 龍潭 金啓의 시조 향유에 나타난 문학적 지향

송재연\*

|| 차례 ||

1. 머리말
2. 『龍潭錄』에 나타난 김계의 향촌생활
3. 김계의 시조 창작과 향유 양상
4. 김계 시조의 문학적 지향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기 『龍潭錄』의 기록을 토대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생을 살았던 향촌사족 金啓의 향촌생활을 살펴보고, 이러한 향촌생활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조를 분석하여 김계의 시조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 지향점을 밝히고자 작성된 것이다.

김계는 시조 30수를 남기고 있는데,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작가가 10수 이상의 시조를 창작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의 시조 작품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일기의 기술방식을 고려할 때 시조 창작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향촌사족의 시조 창작 및 향유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龍潭錄』에는 향촌에서의 소소한 일상생활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감정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이러한 향촌생활을 토대로 창작된 김계의 시조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진솔한 감회를 노래하는 한편, 가족애를 기반으로 한 가문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시조를 통해 삶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김계의 시조 작품만이 가지는 독특한 면모는 가문의식의 표출에서 찾을 수 있다. 조상의 蔭德에 대한 감사, 자손의 출생에 대한 기쁨, 자제들이 出仕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은 모두 가문의 결속과 번영을 바라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김계가 시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문학적 지향은 자손의 번창과 가문의 발전에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중앙의 정치 현실에서 배제된 한미한 향촌사족으로서 가문을 유지하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배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김계, 용담록, 향촌사족, 일기, 시조, 생활감정, 가문의식

## 1. 머리말

金啓(1575~1657)는 조선 전기의 文臣이었던 金孝貞(1383~미상)의 직계 후손으로, 慶北 比安 朴淵에 세거하면서 門戶를 떨친 향촌사족이었다.<sup>1)</sup>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생을 살았던 향촌사족으로, 시조 30수를 남긴 多作의 작가이지만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수봉·정양완이 김계의 일기 『龍潭錄』에 대한 해제를 발표<sup>2)</sup>한 이후, 후속 연구는 그의 생애와 시조 문학에 대한 개괄적 분석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1) 金啓의 아버지인 金禮復은 학문에 힘써 유림들 사이에서 학식과 덕행을 높이 추앙받았고, 후에 軍資監 直長을 지냈다. 김계는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學行으로 義禁府 都事에 추증되었다. 만형인 金禧는 28세이던 1593년에 의병장으로 출전하여 상주의 丹密地에서 순절하였다. 둘째형 金吉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셋째형 金喆과 관련된 기록은 임진왜란 때의 일화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다.

2) 이수봉·정양완, 『八〇老年의 심층에서 우리나라의 時調와 日記 : 金啓의 『龍潭錄』 解題』, 『문학사상』 15, 문학사상사, 1973, pp.368~374.

3) 이수봉은 『龍潭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가의 생애를 밝혔고, 여기에 수록된 시조 35수를 발굴하여 그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김계의 시조 작품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7세기 시조문학의 특징을 논의하는 가운데 김계의 시조 작품이 인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계를 비롯한 그의 가문의 시조 창작 및 향유의 양상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수봉, 『龍潭錄의 시조 : 미발표 시조 35수에 대하여』, 『논문집』 11, 영남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1974, pp.11~23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그러나 김계의 시조 작품은, 다수의 작품이 한 개인의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계는 『龍潭錄』이라는 일기를 남기고 있는데, 이 일기에는 그가 지은 시조 30수<sup>4)</sup>가 실려 있을 뿐 아니라, 그가 63세이던 1638년부터 몰년인 1657년까지 20년간의 향촌 생활의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방의 향촌 공간에서 주로 생활했던 향촌사족의 삶과 시조 향유 양상을 보다 긴밀하게 관련시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기의 기술방식을 고려할 때 시조 창작의 일시, 장소 등을 알 수 있고 시조 창작 동기나 작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 시조의 창작 및 향유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龍潭錄』의 기록을 토대로 향촌사족이었던 김계를 비롯한 김계 가문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향촌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조 작품들을 분석하여 김계의 시조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 지향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조선중기 향촌사족의 시조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2. 『龍潭錄』에 나타난 김계의 향촌생활

현전하는 자료 중에서 김계의 삶을 재구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龍潭錄』이다.<sup>5)</sup> 족보인 『善山金氏白巖先生派譜』에 그에 대한 간략한 기

월인, 2000, pp.9~239 ;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pp.35~102.

4) 『龍潭錄』에는 김계가 지은 시조 이외에 아들이 지은 시조 1수, 손자가 지은 시조 2수, 친구가 지은 시조 1수, 그리고 仁祖가 지은 시조 1수도 실려 있다. 아들, 손자, 친구가 지은 시조 작품은 김계의 향촌생활과 시조 향유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조가 지은 시조는 병자호란 때 鳳林大君 및 주전파 宰臣들과 같이 인질로 瀋陽에 갔던 昭顯世子の 한시를 전해 받고 그 심정을 읊은 것으로, 본고의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록이 전하고 있을 뿐이고, 『邑誌』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의 碑文에 그에 대한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족보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김계의 생애 전반을 온전하게 재구하기는 어렵겠지만, 『龍潭錄』에 담긴 노년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향촌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龍潭錄』에 기록된 김계의 향촌 생활은 지극히 일상적이다. 경북 비안 일대에서 지낸 그날그날의 일상과 생활 감정이 진솔하게 기술되어 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 및 가족사, 날씨 및 기후의 변화, 농사일, 향촌 사람들의 삶과 정서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중앙의 정치 현실이나 벼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직된 유교이념보다는 소소한 생활의 모습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적 일상을 비롯하여 契會, 都會, 老人會, 白日場 같은 향내 구성원들 간의 모임을 통해 향촌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계 자신, 자손들, 그리고 향촌 인사들이 계획나 도회, 백일장 등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龍潭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향촌 사회 내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모임을 주선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여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키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무자년(1648) 4월 10일. 북송림의 倉前契會에서 새 차양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어서 나와 맏아들, 셋째 아들 등이 참가했다.<sup>6)</sup>

㉡ 무자년(1648) 4월 13일. 맏아들이 안동의 백일장에 갔다.<sup>7)</sup>

5) 『善山金氏白巖先生派譜』의 기록을 보면, 김계의 저서로 『龍潭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龍蛇日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김영부 편집, 『善山金氏白巖先生派譜 : 全』, 선산김씨 백암선생과 전국종친회, 1997.

6) 『龍潭錄』. “戊子閏月初十. 倉前契會于北松林, 以新遮日視衆事, 吾與孟季子等, 參焉.”

㉔ 무자년(1648) 9월 16일. 형편상 부득이하여 노인회에 참여했다. 御前 앞에 위아래로 장막을 설치하니, 상하의 남녀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성주는 의관을 갖추고 자리에 나와 좌우를 나누고는 노인들 옆에 앉았다. 자제들은 물러나 노인들 뒤에 앉았다. 歌兒와 舞童이 어전에 줄지어 서서 거문고를 타고 생황을 불어 종일토록 즐거움을 만끽했다. 각각 지팡이와 帛巾을 주었고, 날이 저문 후에 끝이 났다.<sup>8)</sup>

㉕ 기축년(1649) 12월 16일. 倉前契會에서 酒果를 보내왔다.<sup>9)</sup>

㉖ 기축년(1649) 12월 17일. 朴淵契會에서 酒果를 보내왔다. 근변의 집에서 떡을 보내왔다.<sup>10)</sup>

위의 기록을 보면, 김계를 비롯한 그의 자손들, 門生들은 倉前, 朴淵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계회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계원들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회는 단순히 모임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갖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음주와 유흥을 동반하고 또 문학과 예술의 실천을 건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즉 향촌사회 내의 다양한 관계를 조직하고 유지하면서 소통과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학적 성과를 빚어내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노인회의 기록을 보면, 연회의 상황과 술과 음식,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흥취를 북돋는 유흥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1646년 8월 27일에도 노인회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歌兒와 舞童이 장구를 두드리

7) 『龍潭錄』. “戊子閏月十三. 胄子往安東白日場.”

8) 『龍潭錄』. “戊子九月十六日. 勢不得已, 進參老人會. 設帳幕於御前外, 上下男女年七十以上咸聚. 城主沙帽品帶, 出座而分左右, 坐次老人. 子弟退坐厥父坐後. 歌兒舞童羅列御前, 鼓琴吹笙, 終日歡樂. 各賜杖與帛巾, 日暮乃罷.”

9) 『龍潭錄』. “己丑十二月旬六. 倉前契會, 送酒果來.”

10) 『龍潭錄』. “己丑十二月旬七. 朴淵契會, 送酒果來. 鯤變家送餅來.”

11) 신영주, 「15·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회 활동과 계회도축」, 『한문학보』 제17집, 우 리한문학회, 2007, p.54 참조.

고 피리를 불었다는 기록<sup>12)</sup>이 있고, 또 잔치가 끝난 뒤에는 김계가 직접 시조<sup>13)</sup>를 지어 노래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계는 향촌생활에서 유독 가족 혹은 가문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가문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조사와 그 때의 심회,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근심과 걱정 등을 세세히 적었다.

『龍潭錄』에는 일가친척들과의 연회 상황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흥적 연회를 통해 친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 정해년(1647) 9월 9일. 一家가 달빛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sup>14)</sup>

㉡ 정해년(1647) 5월 25일. 宗胤이 酒果를 가지고 왔다. 이 날은 洛의 생일이다. 彦瞻이 留宿했는데,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셔 크게 취했다. 衰老하였는데 술에 몹시 취하였으니 매우 딱하다.<sup>15)</sup>

㉢ 신묘년(1651) 9월 11일. 맏아들의 생일이다. 모든 자손이 草堂에 모였는데, 新屏의 金林이 술을 가지고 왔고, 별감 변씨가 와서 참여했다. 가무가 지극히 즐거워서 밤이 깊어서야 끝이 났다.<sup>16)</sup>

㉣ 임진년(1652) 5월 25일. 흐리고 바람이 서늘했다. 아들 鏡은 정성스레 술상을 준비했다. 자손이 집안에 가득했고, 가무가 지극히 즐거운 후에야 끝이 났다.<sup>17)</sup>

㉤ 계사년(1653) 9월 11일. 맏아들의 생일이다. 우리 부부는 아들을 보러

12) 『龍潭錄』. “二十七. 老人會, 植松林. 連日老宴, 歌兒舞童, 鼓缶吹笛, 極歡而罷.”

13) 어와 어엿불샤 亂離인생 어엿불샤 / 平時少年으로 亂離 中에 다 늘겘다/ 오를랄 설운 스실흐다가 즐겨 헤면 엇더흐고

14) 『龍潭錄』. “丁亥九月初九. 一家歌舞月下.”

15) 『龍潭錄』. “丁亥五月念五. 宗胤持酒果來, 此日乃洛生日也. 彦瞻仍留宿, 唱歌酬酌大醉. 衰老中酒困極矣. 悶悶.”

16) 『龍潭錄』. “辛卯九月十一日. 冑子生日也. 諸孫會于草堂, 新屏金林亦佩酒來, 時別監下來參. 歌舞極歡, 夜深乃罷.”

17) 『龍潭錄』. “壬辰五月念五. 陰而風冷. 鏡盛備杯床. 子孫滿堂歌舞, 極歡而罷.”

갔다. 관기가 노래를 부르니 기쁨이 지극한 후에야 끝이 났다.<sup>18)</sup>

위의 예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의 생일 연회에서 주로 酒果를 즐기며 歌舞를 곁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계회와 마찬가지로 자손, 친척, 門生들이 佩物과 酒果를 가지고 와 함께 취흥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장을 통해 한시나 시조를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한편 조상 산소의 화재 사건, 자식의 옥살이, 일가친척의 得病과 죽음 등의 凶事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역시 가족 혹은 가문을 중시하는 면모라 할 수 있다. 특히 흉사 중에서도 疫病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1644년에 큰 역병이 돌게 되는데, 이때 김계의 일가 중 여러 명이 역병을 앓게 된다. 어린 손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7일 손자 甲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비로소 듣게 되었다. 통곡! 통곡!  
12일에 죽었다는데 가족들이 숨겨 말하지 않았다. 몹시 한탄스러우니 어찌하여 늙어서도 죽지 못하고 이러한 의외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sup>19)</sup>

위의 기록을 보면 역병으로 인해 어린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을 잘 느낄 수 있다. 일기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손자 甲에 대한 기록을 볼 때 김계는 갑을 무척 사랑했고, 또 기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갑이 避病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통을 상세하게, 또 애처롭게 서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손자가 역병으로 죽게 되자 김계의 상심이 매우 컸을 것이다.

18) 『龍潭錄』. “癸巳九月十一日. 胄子生日也. 吾夫妻往見. 官妓唱歌, 極歡而罷.”

19) 『龍潭錄』. “十七日始聞甲訃. 痛哭痛哭. 十二日之云已. 一家之人秘不發言. 尤用深嘆, 何老而不死, 見此意外之喪患乎.”

그리고 가족 혹은 가문과 관련하여 김계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거시험이었다. 과거가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비롯하여, 과거의 試題는 무엇이었는가, 자손들이 과거에 급제했는가 또는 낙방했는가 등이 주요한 관심거리였던 것이다. 자손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길을 떠나면 노심초사 하며 자손들의 급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 급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기이한 꿈을 꾸기도 했다.

6일. 밤에 꿈을 꾸었다. 수십 척의 길이가 되는 蛇龍이 곧바로 서서 하늘을 오르다가 동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해 서서히 골짜기로 갔다. 그 머리는 큰 학 같고 회기가 눈 같으니, 기괴하여 형용하기 어렵다. 꿈이 바뀌어 손자 瀼가 급제하여 선조의 산소에 고하고 절을 올리는데, 倡夫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리고 구경꾼들이 몹시 많았다. 이 또한 기이한 꿈이다.<sup>20)</sup>

꿈에서 사룡이 하늘로 올라 골짜기로 날아오는 모습과 손자 瀼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자손들의 과거 급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급제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만큼 낙방하고 돌아오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 3. 김계의 시조 창작과 향유 양상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喜怒哀樂의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회로애락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있어 김계는 시조를 중요한 양식으로 다루었다. 정제된 형식으로 다듬어 노래했다기보다는 作詩

20) 『龍潭錄』. “初六. 夜夢. 蛇龍, 長數十尺, 直立騰空, 自良方始, 徐徐向南行於此洞. 其頭如大鶴而白如雪, 奇怪難形. 又交夢之瀼孫登科, 榮墳, 倡夫之聲喧騰, 觀者甚衆. 此亦奇夢.”

공간에서 느끼는 감회를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생일잔치 현장에서 즐거운 심회를 즉흥적으로 읊기도 하였고, 또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접했을 때 흥취를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시조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계의 향촌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 중 하나가 가족 간의 宴會이다. 이러한 연회는 대체로 유희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다. 『龍潭錄』에 자주 기록된 연회는 생일잔치인데, 김계 자신의 생일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손들의 생일에도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연회의 장에서 느끼는 즐겁고 정겨운 심적 상태를 시조로 노래하였다.

김계의 생일은 5월 24일인데, 그때마다 잔치를 벌이곤 했다. 자손들과 門生들이 각각 盛饌을 가지고 草堂에 모여 종일토록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다. 이때 그 감회를 시조로 노래하였다.

오느를 헤여 보니 이내 몸의 初度日이  
 劬勞生我 訶샤 辛勤養育 訶신 父母恩惠을 生覺 訶니 더욱 설다  
 언의제 地下의 드러가 다시 侍側 訶오려뇨

위 시조는 1654년 79세 생일 때에 노래한 시조이다. 그런데 김계는 자신의 생일에 자손들과 문생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면서도 흥취보다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생일에 작지는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시고, 또 기르시느라 부지런히 노력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시조로 표현하였다. 특히 중장에는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劬勞生我 訶샤 辛勤養育 訶신’이라는 수식어가 길게 들어가 있는데, 이는 작자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감정이 과잉되어 언술이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제쯤 죽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옆에서 모실 수 있겠느냐는 종장의 탄식이 애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 ① 내 나히 설흔 다스새 너를 아니 나한나  
 오르는 生覺 ㅎ니 나는 여든이오 너는 마은이오 여스시로다  
 先人의 陰鷲 ㅎ신 恩德을 ㄱ이업서 ㅎ노라
- ② 父母主이 늦거아 이내 몸을 末子로 나하겨서  
 저지 업써 비러다가 살와내샤 五十年 將至히 되서시니 父母主 恩惠을  
 어이히여 갑소올고  
 願켤댄 三百盃 ㄱ득 브어 이날에 ㅎ 잔식 드리이다
- ③ 오롤랄이 므슴 랄고 우리 叔父 初度日이  
 子孫이 滿堂 ㅎ야 壽觴을 다 모아드리오니 즐거움은 ㄱ업소디  
 다문당 이 몸은 家君이 作客千里 ㅎ야 이랄에 문 參與니 ㄱ ㅎ음인가 ㅎ  
 로이다

위의 세 시조는 모두 1654년 7월 19일 둘째아들 金鉉<sup>21)</sup>의 생일에 불러진 노래이다. 김계는 아들의 생일 잔치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고 나서 시조 ①을 지어 불렀다. 김계가 막내 鉉을 낳았을 때 서른다섯 살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금 여든 살이 되어 있다. 막내 현도 이제 마흔여섯 살이 되었다. 작자는 막내 현을 낳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수하여 효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을 선조들의 恩德 때문에 돌리고 있다.

이에 鉉은 아버지의 시조를 듣고서 답가를 올린다. 그것이 시조 ②이다. 부모님께서 늦게 얻은 이내 몸을 젖을 빌려 길러내서 50년 동안 키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냐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술잔을 올려 경사스러운 이 날을 축하하고자 한다.

21) 김계는 슬하에 金鉉, 金鏡, 金鉉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김옥은 만형인 金喜에게 양자로 보내졌다.

이어서 손자 魯變이 시조를 지어 올린다. 시조 3은 자손이 가득한 가운데 술잔을 올리니 즐거움은 끝이 없는데, 아버지 鏡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和答의 형식으로 불려진 이 세 수의 시조는 모두 생일 잔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불린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고양된 감정 상태 그대로를 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조의 노랫말이 길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일 잔치 현장에서 화답의 형식으로 불린 시조로 李賢輔와 盧禎의 시조 작품을 들 수 있다. 다음 시조는 이현보의 <生日歌>인데, 1551년 가을 자손들이 베푼 생일 잔치에서 鄉中의 인사들이 모두 모여 술잔을 주고받다가 술에 취하여 각자 노래를 부르자 이현보가 이에 화답한 것이다.<sup>22)</sup>

功名이 그지 이실가 壽夭도 天定이라  
 金犀씩 구븐 허리에 八十逢春 古 몇히오  
 年年에 오노나라 亦君恩 | 샅다

이 시조는 85세 생일을 맞은 작자가 그가 누린 功名과 長壽를 자랑하고,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낸 작품이다.<sup>23)</sup> 이 시조에서 작자가 드러내려는 핵심은 중장에 나타나 있다. 자신의 높은 공명을 비유한 ‘金犀씩’로 인해 허리가 굽었는데, 이제 봄을 여든 번이나 만난 것이 몇 해이나고 설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오래 살았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중장에서 해마다 오늘같이 좋은 날을 맞게 해준 것은 임금의 덕택 때문이라고 돌려 말하고 있다. 이 점이 앞서 살펴보았던 김계의 시조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중앙 정계에서 벼슬을 한 적이 없었던 김계가 자신

22) 李賢輔, 『龔巖集』, 민족문화추진회, 1996 참조.

23) 성호경, 『농암 이현보의 삶과 시가』, 『진단학보』 93집, 진단학회, 2002, p.236.

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을 先祖의 덕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과 달리, 出仕하여 관직 생활을 하고 정치적 浮沈을 경험한 이현보는 그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다음에 예로 든 시조는 母夫人의 壽宴에서 불린 노래로, 盧禎과 母夫人의 화답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 ① 萬壽山 萬壽洞에 萬壽泉이 잇더이다  
이 물의 술을 비져 萬壽酒라 하더이다  
이 잔을 잡으시면 萬壽無疆 하시리다

<進豐宴獻萬壽山歌>

- ② 日中 金가마고 가지 말고 너 말 드러  
너는 反哺鳥라 鳥中之曾參이니  
오늘은 날 위하야 長在中天 하얏고다

<母夫人壽宴歌>

- ③ 國家太平하고 萱堂에 날이 긴 제  
머리 흰 判書 야기 萬壽盃 드리논고 每日이 오늘 갓타면 성이 무슨 가  
식리  
아마도 一髮秋毫 聖恩잇가 하노라

<母夫人答歌>

시조 ①과 ②는 노진이 모부인을 위해 지은 노래이다. ①은 모부인의 萬壽無疆을 기원하는 작품으로 ‘萬壽’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는 反哺鳥인 ‘까마귀’를 소재로 차용하여 모부인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다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모부인은 시조 ③을 지어 화답한다. 萬壽盃를 올리며 장수를 기원하는 자식에게 모부인은 매일 오늘같이 즐거우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현보의 시조와 같이 오늘처럼

좋은 날이 있게 해 준 것을 聖恩으로 돌리고 있다.

한편 김계는 풍류의 공간을 산수 자연으로 옮겨 자손, 문학생들과 함께 경치를 완상하며 그곳에서의 흥취를 한시로 짓고, 시조로 노래하였다. 김계가 주로 풍류를 즐겼던 장소는 掛冠岩<sup>24)</sup>이었다. 1647년 2월 19일자 일기를 보면, 김계는 막내아들과 함께 靑觀암으로 가서 朴愛成, 朴允文, 李愛信 등이 각자 준비한 酒果를 나누며 이들과 즐거움을 나눴고 그곳에서의 흥취를 한시로 표현하였다.<sup>25)</sup>

掛冠臺는 일찍이 놀았던 곳이지만  
 水色과 산빛의 저녁 경치 새롭구나.  
 春酒를 여러 잔 마시니 그윽한 흥취 일고  
 詩歌로 화답하니 情義 서로 쌓이누나.  
 掛冠臺上曾遊地 水色山光暮景新  
 春酒數盃幽興發 詩歌相和義相親

위 한시를 보면, 예전부터 즐겼던 靑觀암의 경치를 바라보며 술을 나눠 마시고 詩歌로 화답하면서 교분을 쌓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해 3월에는 주변의 여러 명승지를 돌아보고 다시 靑觀암에 이르러 그 감회를 시조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少年적 노던 짜홀 오늘와 고타 보니  
 山川은 네 췌티오 인물은 아니노다

24) 掛冠岩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掛冠’이 관을 벗어서 걸어 놓는다는 말로, 벼슬을 그만두는 것을 뜻하는 것을 볼 때 隱者들이 선호할 만한 자연 경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龍潭錄』. “丁亥二月十九. <…> 午與末子往掛冠岩, 朴愛成·朴允文·李愛信等, 各佩酒果. 極歡而罷. 醉裏, 乃作詩歌.”

七十年 거느리던 風景을 너히 맛다 노라스라

이 시조에 병기된 기록에 “3월 13일에 洪伯昇 형제가 찾아왔다. 14일에 홍백승 형제 및 아이들과 함께 仙院岩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오랫동안 강물을 따라 거닐었으며, 물가를 산보하다가 金昃의 집앞에 이르렀다. 주인이 술병을 들고 나와서 자갈밭에 나란히 앉아 술을 다 마신 뒤에 천천히 냇가를 따라 내려왔다. 龍潭의 松林에서 앉아 쉬다가 일어나 푸른 잔디를 실컷 밟고, 靑巖에 이르니 둘째와 막내가 각각 주과를 가져왔다. 바위에 나란히 앉아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사람들이 모두 봄경치를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면서 귀가할 것을 잊었다. 날이 저물자 나는 홀로 먼저 돌아왔고, 아이들과 손님은 황혼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에 노래를 지었다.<sup>26)</sup>”라고 되어 있다.

선원암, 용담 송림, 강변, 靑巖은 어렸을 때부터 놀던 곳으로 세월이 흘러도 그 자연 경치는 그대로였지만, 자신의 모습은 옛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작자는 이제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아름다운 경치를 자손들과 문하생에게 맡기면서 이를 즐길 것을 권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영원불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자연과 대비한 노년의 작가의 모습에서 탄식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김계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시조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同甲에, 同鄉에, 同志이고  
鄉舍, 嚮堂에서 같이 지낸 것이 얼마인가

26) 『龍潭錄』. “丁亥三月旬三, 洪伯昇昆季來訪. 旬四, 與兩洪及兒輩, 翫景于仙院岩. 徘徊良久沿江, 散步沙汀, 到金昃家前. 主人佩壺而出, 列坐磧上, 飲罷後, 徐下川邊, 休坐龍潭松林而起, 踏盡青莎, 到掛冠岩. 仲季兒曹, 各持酒果, 列坐岩上, 或詩或歌酒酣. 人皆不勝春景, 樂而忘歸. 日暮余獨先還, 兒與客黃昏還家, 于時作歌.”

그대와 내가 떨어진 지 오래니  
멈춘 구름 멍하니 바라보다 괴로이 시를 읊네  
同庚同邑又同志 鄉舍鬢堂共幾時  
君我年深阻隔久 停雲空望苦吟詩

나도 그리거니 게서 아니 그리실가  
그리는 情懷을 혼 입으로 다 니올가  
언저기 다시 相逢하야 그리는 뽉 술오려뇨

위의 작품은 김계가 ‘鄭子寶’라는 친구의 不在 상황에서 느낀 그리움을 각각 한시와 시조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정자보의 화답으로 이어진다. 정자보 역시 한시와 시조로 친구 김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바다를 뒤집고 산을 기울이는 것이 어찌 쉽지 아니하라  
어렸을 때 서로 좋아했던 것이 늙을 때까지 이르니  
평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이미 情歌를 얻었는데 또 詩까지 주신 것이리라  
到海傾山豈不易 小時相好至衰時  
箇中無限平生感 旣得情歌又得詩

게만 그리올가 나도 더욱 기리옵니  
내 그리는 심회를 게서 어이 아늑실고  
언저기 春日이 연난커든 一壺酒 가지고 그리는 情恨을 細細詳書호리이다

예로 든 김계와 정자보의 두 시조는 인간의 不在 상황에서 기인하는 그리움을 노래로 표출한 화답 형식의 시조이다. 김계가 시조 종장에서 “언저기 다시 相逢하야 그리는 뽉 술오려뇨”라고 ‘언제쯤’인지를 묻자 정자보는 ‘春日’이 돌아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그 때 한 병의 술을 가지고 가서

그리운 情懷를 세세히 써서 풀어버리자고 답하였다.

또 김계는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시조로 표출하였다. 한미한 신분으로 향촌에서 생활하던 노년의 작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나 동료, 아랫사람 등이 있다면 그때마다 김계는 그 감사의 마음을 시조로 노래하였다.

느그니 赤足로 거름마다 苦勞음더니  
 芒鞋 一部을 굳고 도케 삼마 주니  
 兩生의 對老仁厚을 몰내 感激호여이다

이 시조에 병기되어 있는 기록에 “1650년 8월 7일. 손자 魯變과 金旆이 군위에 있는 시험장으로 시험을 보러 갔으니, 나는 그곳의 풍광을 볼 계획이었다. 그 때 炭池와 永川에서 온 두 사람이 나에게 芒鞋를 주었고 이에 감사하여 노래 한 곡으로 답례하였다.”<sup>27)</sup>라고 되어 있다. 1650년이면 작자의 나이 75세 때인데 걸어서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때 작자가 조금이나마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망혜를 단단하게 삼아 주었으니, 그 고마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종장에서 두 사람의 仁厚한 마음에 감격하여 이에 대한 감사함을 꼭진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심회를 노래한 시조로 늙고 병들어 行步가 어려운 자신에게 竹杖을 선물해 준 孫僉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sup>28)</sup>, 머리가 하얗게 선 자신에게 치장할 驄冠을 선물한 座首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sup>29)</sup>,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麻衣를 보내준 金僉知에게 감사의

27) 『龍潭錄』. “庚寅八月初七, 魯變與旆往軍威試所, 以爲觀光之計. 炭池永川, 兩生贈我芒鞋, 謝答一曲.”

28) 를고 病이 드러 行步乙 묻호더니 / 紫行대 막대를 날 위호야 보내도다 / 뷔거러 업든던 몸이 일로 扶持호노라

29) 를고 病이 든히 이 더위를 만나이서 / 被髮露體호고 죽글 띠을 버라더니 / 오늘랄

마음을 노래한 시조<sup>30)</sup>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김계의 시조는 일상적 삶 속에서 느끼는 정서를 표출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족애를 바탕으로 하여 가문의식을 드러내려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있게 해준 선조들의 자취를 중시하여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또 가문을 이어나갈 자손들이 출생한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나아가 가문의 번창을 위해 자손들이 벼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먼저 조상들이 남긴 자취를 중시하려는 태도<sup>31)</sup>를 드러내는 시조는 다음과 같다.

先人の 심근 가솔 朝暮에 도라보고  
 追思昔日 何야 愛同毛髮 何던 거슬  
 몰라대 不道賊을 만나서 一朝蕩盡 何거줄 알라

이 시조에 병기된 기록을 보면, 1644년 2월 2일 밤에 불이 나서 능의 북쪽이 다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朴淵에서 兩樂亭까지 다 불타 훼손되었고, 민가 20여 채와 김계 父子의 집 4채도 훼손되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皇考가 休養之物로 손수 심은 65그루의 송림이 하루아침에 다

이 鶻冠을 어더두고 다시 治容 何노라

30) 苦熱에 淸風을 주니 感謝屎 너기더니 / 如雪麻衣를 品制 그초 지어주니 / 이몸이 沙土이 된들 이 恩惠를 니를러라

31)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로 이어지는데, 김석회는 조선 후기 시가작품에 나타나는 향촌사족들의 이러한 모습을 ‘慕先 취향과 遺跡·舊物에 대한 향수’로 규정하고 있다. 경화사족들이 한양도성의 당대문물을 구가하는 취향이 뚜렷하고, 옛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감정치가 보장될 만한 古董 서화 등을 애호한데 비해, 향촌사족들은 자기가 사는 향토를 예찬하되 찬란했던 과거와의 대비 속에서 주로 祖先들이 남긴 자취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석회, 『조선후기 향촌사대부 시가와 취향의 문제』, 『조선후기 시가연구』, 월인, 2003, p.255 참조.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김계는 시조를 짓게 된다.<sup>32)</sup> 선조들이 심은 나무를 아침저녁으로 살피고 애지중지하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다. 특히 종장의 ‘不道賊’이라는 어휘의 사용은 ‘不道한’, 즉 ‘도리에 어긋난’ 도적을 만났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지만, 한자 ‘不’의 음이 ‘火’를 뜻하는 ‘불’ 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불 도적’이라는 음의 동일함 속에서 언어유희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탄의 심회가 유희 속에 함몰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한탄 속에 선조를 생각하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다.

김계가 남긴 시조 중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노래한 시조이다. 노년의 작자가 손자의 출생에 대한 기쁨을 시조로 노래한다는 것은 시조가 가진 서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표출된 이면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적 상태 이외에 ‘가문의 번영’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① 壽則多辱이라홀시 죽거지라 願히더니

一日之內에 內外曾孫 보완데고

辱불 제 불디라도 이런 慶事 업세라

② 내 나히 닐흔여섯 憂患中에 ㅅ엇더니

內外曾孫을 사홀 內에 보단말가

깃보고 즐거운 ㅅ음이 ㅅ이 업서 ㅎ노라

시조 ①은 김계가 증손자를 보았을 때의 심회를 노래한 작품이다. 병기

32) 『龍潭錄』. “甲申二月初二日. <…> 夜半衡火, 陵陰盡燒. <…> 自朴淵至兩樂亭, 毀破居民二十餘家. 吾父子四家, 亦不免. 無異清正之軍. 非但此. 皇考手植松林, 六十五載休養之物, 一朝伐兀. 正如呂政, 肆惡湘江人. 人相顧失色, 遠近莫不慟嘆.”

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1648년 5월 10일 虎變이 득남했다. 이름을 ‘錫曾’이라 하였다. 종손이 대를 이으니 이 또한 祖宗의 積德, 餘慶이다.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을 그칠 수 없어 노래하였다.”<sup>33)</sup>라고 되어 있다. 호변은 김계의 맏아들이었던 金鉉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석증’은 김계의 증손인 것이다. 김계가 비록 대를 잇기 위해 맏아들 옥을 맏형에게 양자로 보내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맏아들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런 아들이 손자를 보았으니 기쁨이 그지없던 것이었다.

시조 ② 역시 증손자를 얻은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조에 병기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1650년 10월 11일 赤羅에 있는 손녀가 亥時에 아들을 낳았고, ‘弘祖’라 이름지었다. 내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sup>34)</sup>라고 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의 초장을 보면 “壽則多辱이라홀시 죽거지라 願호더니”, “나히 닐흔여섯 憂患中에 밖엿더니”라고 되어 있다. 초장에서는 늙어가는 자신을 보고 ‘죽고싶다 원하더니’와 ‘우환에 싸엿더니’라고 하여 늙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종장으로 가면 오래 살게 되어서 증손을 보았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여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 양상은 김계가 지은 <老人辭><sup>35)</sup>와는 차이가 있다. 이 작품에서 나이 74세가 되어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百病만이 매일 찾아오는 현실의 상황을 경험하고, 매년 이가 빠져 씹을 수 없는 신체적 노화를 겪으며 김계는 이 몸을 보전하는 방법은 빨리 죽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앞의 시조와는 달리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龍潭錄』. “戊子五月初十. 虎變生男, 命名錫曾. 宗孫世系, 是亦祖宗積德餘慶, 欣抃不已. 乃歌曰.”

34) 『龍潭錄』. “庚寅十一月旬一. <…> 赤羅孫女生子亥時, 命名弘祖. 余作歌曰”

35) 行年七十四 强寄乎人世 人不尋我來 百疾日日尋 去歲落一齒 今年落一齒 年年落不已 畢竟何能嚼 深思保此體 莫若早歸去 歸去其何處 歸哉其歸路

자손들이 점점 성장해가자 김계는 이제 자손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주기를 바라게 된다.

- ① 세 아들 應科<sup>하</sup>야 京師에 보내두고  
 悠悠戀懷는 靡日不思<sup>하</sup>여노라  
 언저기 兄弟同榜<sup>하</sup>야 와서 이 내 뜰들 위로훑고
- ② 多臥小起 八十翁 日日長立<sup>하</sup>야  
 西天을 불라보고 加額苦待<sup>하</sup>는 뜰은  
 三子의 錦衣還鄉을 묻내 브라 <sup>하</sup>노라

이 두 편의 시조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병기된 기록을 보면, 1645년 8월 15일 김계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손자들을 데리고 黃川에 가서 松谷, 魯淵의 친족들과 함께 산소를 掃墳했다. 그리고 나서 친족들과 오랫동안 음복하고 헤어진다. 그런데 황혼 무렵에 집에 와보니, 洪伯昇·朴孝述 등 8명이 풍기의 과거장에서 집에 도착해 있었고, 이들이 賦題가 ‘金龍扇’이라고 알려주었다.<sup>36)</sup> 그 말을 듣고 작자는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간 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촉발하게 된다. 그런데 종장의 이러한 그리움은 결국 과거 급제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조 ① 종장에 쓰인 ‘兄弟同榜’이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형제가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작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이어서 노래한 시조 ②에서는 80세 늙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작자는 일어서 있는 시간보다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노인이지만 매일매일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加額苦待한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식이 돌아

36) 『龍潭錄』. “乙酉八月十五. 雨中率一孫, 黃川掃墳與松谷魯淵諸族. 良久飲福而散. 黃昏到家則洪伯昇·朴孝述等 八員自豐基科舉已到家矣. 賦題賜金龍扇云. 戀在京兒曹歌.”

오는지 보려고 이마에 손을 얹는 구체적인 행동이 애절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움은 결국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금의환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한편 김계의 시조 작품 중에는 자손에 대한 勸勉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있다. 이러한 권면은 가까이 있는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멀리 있는 향촌 안의 사족들을 비롯한 향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兄主 자시던 절을 나도 조차 머귀이다  
一身을 논히셔 우리 두 몸 삼것거든  
兄弟間 不和오희면 草木禽獸나 다르라

이 시조는 형제간에 우애 없이 화합하지 못하면 그것은 草木이나 禽獸와 다르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곧, 형제간의 화합을 통한 가문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조 앞부분에 작자는 ‘誠子書’를 남기고 있는데, 이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여 집안의 화목과 가문의 결속을 위한 실천적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형제가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外人의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②원망을 묵히지 말고, 화를 간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③취중의 일을 딴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④형은 동생을 우애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여 영원토록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집안 전체가 화락하게 될 것<sup>37)</sup>이라고 하였다.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4. 김계 시조의 문학적 지향

37) 兄弟闕于牆外御示其侮. 不宿怨焉, 不藏怒焉, 親愛之而已. 又醉中之事, 勿爲醒者傳. <…> 兄友弟敬, 永以爲好. 又宜爾室家, 樂爾妻孥. 兄弟既具, 和樂且湛.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계는 시조를 통해 향촌생활에서 느낀 일상적 감회뿐만 아니라 향촌사족으로서 자손의 번창과 가문의 발전을 바라는 가문의식을 표출하였다.

시조 장르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 ‘서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개인적 감정을 술회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계 역시 향촌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느낀 감회를 ‘시조’라는 장르를 통해서 진솔하게 표출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과 문학이 변별적으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문학이 융해되어 있다<sup>38)</sup>는 생활문화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조는 공적 발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많은 시조가 작가의 실제적인 일상을 꺾진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규범화되고 이상화된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논해진다.<sup>39)</sup>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시조는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문학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장르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김계의 시조에 나타난 양상은 이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김계는 문학인 시조를 생활과 분리시키지 않고, 향촌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느낀 개인적 심회를 ‘시조’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출하였다. 따라서 김계의 시조는 개인적 발화의 성격을 띠며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계의 시조 창작 및 향유 양상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성은 그의 시조 가운데 대다수가 가족 및 가문과 관련된 주제라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김계가 노래하고 있는 시조 작품은 거의 모두가 ‘가족’과 ‘집안’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리움, 기쁨, 고마움이라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고, 때로 가족 집단 내의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손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조를 통해 드러

38) 최재남, 「사람의 생활문화로서의 시가활동」,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p.160.

39) 임주탁, 「조선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 제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p.62 참조.

내고자 했던 문학적 지향이 자손의 번창과 가문의 발전에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상의 음덕에 대한 감사, 자손의 출생에 대한 기쁨, 자제들이 出仕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노래하는 것은 모두 가문의 결속과 번영을 바라는 심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김계는 중앙 정계에서 벗어난 한미한 신분의 향촌사족이기 때문에 사족으로서 가문을 유지하여 향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관심이 두드러졌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향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자손들이 과거를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出仕 의지는 강렬할 수밖에 없다. 김계의 집안이 의병활동에 적극 가담한 것도 가문의 번영과 향촌에서의 입지 강화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김계의 형인 김희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출전하였고, 또 김희에게 양자로 보내진 맏아들 김옥 역시 1636년 병자호란 때 비안 의병장으로 출전한 바 있다. 이러한 의병활동은 향촌에서 김계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영향력의 확대에 의해 중앙 정계로 진출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김계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향촌사족 朴仁老(1561~1642), 鄭勳(1563~1640)의 시가 작품들에서도 出仕에 대한 작자의 강한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sup>40)</sup> 물론 박인로는 武科에 급제하여 守門將, 宣傳官, 助羅浦 萬戶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김계, 정훈과는 차이가 있지만, 출사에 대한 강한 열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인로는 조라포 만호의 관직을 맡았는데, 1612년 11월 軍器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라포 만호에서 파직된다. 파직된 후 박인로의 출사의지는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벼슬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작자의 심회는

40) 박인로와 정훈에 관련된 내용은 최현재의 논의를 참조했다. 최현재, 『조선 중기 재치 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安分吟>이라는 한시를 통해 표출되었다. 또 시조 <自警>에서도 출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九仞山 긴 솔 배허 濟世舟를 무어 니야  
 길 닐흔 行人을 다 건너러 ㅎ엿더니  
 사공도 無狀 ㅎ야 暮江頭에 ㅂ렛는다

<自警> 제3수

이 시조는 소나무를 베어 濟世舟를 만들어 길 잃은 行人을 다 건너주려 했지만, 사공이 강가에 버려두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이다. 제세주를 만들어 길 잃은 행인을 건너게 한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출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훈 역시 국문시가를 통해 출사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정훈은 중앙 정계에서 소외당하고 향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민을 문학으로 형상화했는데, 특히 가사 <迂闊歌>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좌절감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강한 출사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출사를 하지 못한 까닭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로 생각하지 않고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으로 돌리고 “迂闊도 迂闊 ㅎ샤 그레도록 迂闊 ㅎ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한탄하고 있다.

결국 향촌사족들은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모두 出仕를 통해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바라는 동시에 향촌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문학을 인간의 정신적 산물로 본다면, 작가가 처한 현실세계와 현실의

체험이 어떻게 작품으로 변형되는가 하는 구조와 그 양상을 밝히는 것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곧, 작품은 작가의 체험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작품과 작가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多作의 시조 작가인 김계의 향촌생활을 살펴 작가의 향촌 생활 체험과 시조 작품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또 그 지향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김계의 경우 그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년기 20년간의 기록인 『龍潭錄』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논의의 결과, 김계가 처한 노년의 현실 체험이 시조로 형상화되고 있었고, 또 시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문학적 지향이 가문의식의 發露였음을 밝혔다.

본고의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과제를 남기며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김계가 교유했던 인물들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이후로 특정 문인이나 특정 가문의 시가 향유 활동이 향촌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인물들 간의 교유관계를 확인하여 그들의 문학적 영향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김계 역시 향촌의 여러 인물들과 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촌사족 집안에서의 시조 창작과 향유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시조작품을 남기고도 시조문학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가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시조장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입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향촌사족의 시조 창작과 향유 양상을 살피기 위해 개인이 남긴 일기문을 주목해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龍潭錄』

『比安輿地勝覽』

김영부 편집, 『善山金氏白巖先生派譜 : 全』, 선산김씨 백암선생과 전국종친회, 1997.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誌』 : 경상도 4, 아세아문화사, 1987.

### 2. 논문 및 단행본

김석희,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pp.253~287.

성호경, 『농암 이현보의 삶과 시가』, 『진단학보』 93집, 진단학회, 2002, pp.221~255.

신영주, 『15·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회 활동과 계회도축』, 『한문학보』 제17집, 우리  
한문학회, 2007, pp.53~80.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pp.9~239.

\_\_\_\_\_,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pp.35~102.

이수봉·정양완, 『八〇老年의 심층에서 우리나라의 時調와 日記 : 金啓의 『龍潭錄』  
解題』, 『문학사상』 15, 문학사상사, 1973, pp.368~374.

이수봉, 『龍潭錄의 시조 : 미발표 시조 35수에 대하여』, 『논문집』 11, 영남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1974, pp.11~23.

\_\_\_\_\_, 『龍潭錄의 시조』, 『晚華本 春香歌와 龍潭錄』, 경인문화사, 1994, pp.156~  
178.

임주탁, 『조선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 제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pp.37~6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pp.45~257.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학』, 『한민족어문』 제45집, 한민  
족어문학회, 2004, pp.361~382.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pp.9~399.

\_\_\_\_\_, 『16~17세기 향촌사림의 시가문학』, 『한국시가연구』 제9집, 한국시가학회,  
2001, pp.79~100.

최현재, 『조선 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pp.11~315.

한국고전문학회,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pp.159~177.

**Abstract**

A study on literary orient of Sijo(時調) written by Kim ge(金啓)

Song, Jae-yeon

This paper is to clarify a literary orient of sijo(時調) written by Kim ge(金啓) who lived in Bian(比安) province on the basis of Yongdam-rok(龍潭錄) of records. Yongdam-rok(龍潭錄) is a diary, and it includes life of the country.

Kim ge(金啓) is a country aristocrat, and a writer. And in the country, he wrote 30 sijos. Because the case in which, by early 17th century, a writer who had written more than 10 sijos is ra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closely sijos written by Kim ge(金啓). And if we consider narrative style of diary, we can receive help in understanding of writing and enjoyment of sijo(時調) written by country aristocrat.

The life of Kim ge(金啓) in Yongdam-rok(龍潭錄) is filled with daily life and honest life feeling. It does not contain political realities, confucian traditions. So sijos written by Kim ge(金啓) show feelings about the country life, moreover express family consciousness. Especially family consciousness is very important in sijos written by Kim ge(金啓). In conclusion, a literary orient of sijo(時調) written by Kim ge(金啓) is to consist in prosperity of descendant and bringing honor to family.

Key words : Kim ge(金啓), Yongdam-rok(龍潭錄), country aristocrat, diary, sijo(時調), life feeling, family consciousness

송재연

소속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12-606

전화번호 : 02-825-2665, 010-4279-2665

전자우편 : jysong28@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